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3월 29일**

대신 당하신 주님 사53:1-6

지난 주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 구체적인 그림을 보았습니다. 속히 빨리 오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올 때에 데리고 오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조심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디를 보내었다고도 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 어디에 두었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복음 운동을 시작할 때 함께 했던 자가 지금은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다고도 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갈 길을 간 사정도 빠짐없이 기록하였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막론하고 그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하여 이 복음 운동이 과연 어떤 과정을 겪어가면서 로마까지 갔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현장을 기록한 중요한 자료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제자의 움직임을 중앙에서 총괄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이 제자 운용이 그의 세계복음화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두고 성경에서 배우고 훈련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 행전은 일어난 사실만 기록했다면 딤후4장은 제자들의 세밀한 움직임과 그들의 속 사정도 기록한, 우리의 그림에 아주 유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야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제자 운동의 예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이 나의 평생에 가야할 그림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변하지 않을 중대한 언약이 될 것이며 망대처럼 우리 가슴 속에 우뚝 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되고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300%의 정신을 가지고 거기에 도달하는 여정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는 과정이 고생이 아니요 감사요 은혜일 것이며 이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시작은 말씀 한 마디를 받는 것이란 사실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 대신 당하신 주님

1)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이고 성찬식 등에서 자주 읽고 다시 한 번 언약으로 잡고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1절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라고 했고 2절은 그는 많은 멸시와 버림을 받고 질고를 알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그런 분이었지만 우리도 그를 귀한 분으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 표현입니다
2)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기록하였는데 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3)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참 놀라랍고도 죄송한 일입니다. 그가 찔리는 것이 우리 허물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는 말이다. 결국 그가 찔리지 않았으면 우리의 허물은 영원히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으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상하지 않았

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었을 것이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비로소 우리에게 평화라는 것이 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그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나음이라는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4) 이유가 영적인데 무엇으로 허물과 죄를 해결하며 평화와 나음을 누리겠습니까.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길 외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입 다물고 무릎 꿇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십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당하기는 주님이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5) 마4장은 마귀에게 주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마귀가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귀를 부르시고 시험을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꺾으신 것입니다.

6)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대신 당하신 것이며 그리하여 백성들이 마귀의 시험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정복하는 답을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사단을 불러 시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상과 꼭 같습니다. 그리고 답은 말씀이었습니다. 마4장은 공생애의 시작이었고 그것을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공생애 전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귀를 불러서 꺾으시는 것이 마귀에게 시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7) 우리는 이삭 대신 죽은 수양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충격적으로 이삭에게 각인된 수양은 그의 평생의 언약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언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100년의 축복과 샘의 근원의 축복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의 왕이 와서 이삭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8) 주님의 대신 죽으심은 우리의 권세입니다. 대신 당하신 것이 우리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죽음도 없고 시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즈음에는 수양이 준비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도 시험이 있는 자는 속았을 뿐입니다.

9) 쫓겨다녀도 복은 우리에게 오고 싸우지 않고 결국은 정복합니다. 이게 “대신 당하심”입니다. 믿고 언약으로 잡고 도전하는 자는 성경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죽음도 이기고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대신 당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승리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10) 그가 이유 없이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유 없이 허물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 이유 없이 상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악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신 당하심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상함을 입으신 권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평화입니다. 그래도 평화가 안 되는 경우는 속은 것입니다. 어디에 속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환경이나 무엇에든지 속은 것입니다.

11)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 중에 절대적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나음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이 치유를 받아야 하고 증인되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해야 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